

“수천종 희귀질환 한번에 검사”

헬스케어 스타트업

금창원 3빌리언 대표

‘수천개에 달하는 희귀질환을 적은 비용으로 한 번에 검사할 수는 없을까?’

유전자 진단 전문 바이오 기업 마크로젠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금창원 3빌리언 대표(사진)는 검사 비용만 낮출 수 있다면 희귀질환 유전자검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 섰

발병빈도 높은 4000여가지 1000달러에 유전자 분석

다. 희귀질환은 1만명 중 한 명이 하에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희귀질환 종류는 7000개가 넘는다.

이달 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3빌리언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병원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 희귀질환 등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할 수 없어서 석하면서 가격은 1000달러 이하인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희귀질환은 80% 이상이 유전

문에 발병한다. 하지만 건당 4000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도 상당수다. 3빌리언은 질병당 0.25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4000여개 희귀질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환자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자가 집으로 보내준 진단 키트에 타액을 묻혀 되돌려 보내면 3빌리언이 2~3주 정도 분석을 거친 뒤 온라인으로 결과를 알려준다. 지난해 3빌리언이 미국에서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자 100명의 환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금 대표는 “희귀질환 환자의 30%가량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질환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3빌리언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병원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 희귀질환 등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할 수 없어서 석하면서 가격은 1000달러 이하인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희귀질환은 80% 이상이 유전

다. 금 대표는 “2021년 1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위급시 누르면 경고음 울리고 위치 정보 전송”

기존 호신기 단점 보완

오작동률 8분의 1로 낮춰

안심지역 이탈시 ‘자동 문자’

아동 실종 예방에도 활용



김한준 대호아이엔티 대표가 스마트 호신기 ‘마미콜’을 개발하기 시작한 건 2년 전이다.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지인의 말을 듣고서였다. 지인이 가입한 유명 통신사의 자녀 안심요금제 서비스는 오작동이 잦았다. 자녀가 학교 시 학교 정문을 나가는 순간 보내준다면 문자 메시지는 여러 번 오지 않았다. 지인은 “자녀안심 문자를 기다리다가 아이를 찾으러 가는 시간만 지체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오작동이 거의 없는 물건을 내놓으면 후발 주자라도 시장 장악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2년간 연구개발(R&D) 끝에 작년 10월 출시한 마미콜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호신용품이다. 가로 4cm, 세로 4cm의 정사각형 형태 액세서리다. 가방 등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연동된 스마트폰에서 경고음과 LED(발광다이오드) 불빛이 나온다. 주변에 응급 상황을 알려 치환을 되찾을 수 있다. ‘전화’ 버튼을 누르면 연동된 스마트폰이 지정한 번호로 전화를 건다. 납치 시 수화기 너머로 주변을 전달해 상황을 알리는 기능이다. 위치 정보가 담긴 문자메

김한준 대호아이엔티 대표가 스마트 호신기 ‘마미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블랙큐브-쿨셀 (031)315-1300 △버엘티주식회사-식품포장기 Lofaho (042)671-9501 △대호아이엔티-스마트호신기 마미콜 (055)715-2233 △코맥-휴대용 에너지 저장장치 파워라이저 (031)476-1390

으로 김 대표는 예상했다.
◆‘생활밀착형 통합솔루션 구축’ 김 대표의 최종 목표는 마미콜을 시작으로 IoT 기반 생활밀착형 통합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 4-5월에는 수화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분석 지연을 막아주는 수화물 안전관리 솔루션을 출시한다. 하나의 출입카드도 아파트 출입문과 집 현관문 등 여러 개의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현관문 출입 솔루션도 기획 중이다.
그는 “문화콘텐츠, 건강관리 등 8개 정도의 분야에서 사람들의 틈새 수요를 찾아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며 “4-5개월 선보인 뒤에는 서비스들을 마미콜 같은 하나의 기기에서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조미현 기자** archo@hankyung.com

금리 상승기 재테크 전략은?

2017 한경머니 로드쇼

자산관리, 금융투자, 부동산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자산관리 비법을 제시합니다.

1년에 한번 나의 자산관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참가대상	· 자산관리, 주식&금융상품,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가비	· 없음 (발표자료집 무료제공)
1:1 재무상담	· 은행, 보험사의 전문 상담사 배치 (서울: 시흥은행+보험사 / 지방: 해당 지방은행+보험사) · 운영시간 : 13:00~16:20	참가신청	· 홈페이지 (http://event.hankyung.com)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 02-360-4516,4517

일차	지역	장소	14:00~14:55 종교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	15:10~16:05 유망 금융상품 및 투자전략	16:20~17:1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전략
3월29(목)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조현수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 팀장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3월7(화)	부산	빅스 컨벤션홀 104호	정영희 KB국민은행 부산FB센터 부센터장	김경록 미래에셋은행연구소장	김성주 BNK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3월8(수)	울산	울산MBC컨벤션 2층 안길로홀	장경영 한경생애설계센터장	신현호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	삼형석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3월9(목)	대구	엑스코 211호	김대근 NH농협은행 WMS리빙팀 선임연구원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산센터장
3월14(화)	인천	송도컨벤시아 113호	배종우 KEB하나은행 울림픽션수준FB센터장	신현호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	임재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3월15(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308호	손기영 삼성생명 후남FB센터 FP팀장	이영길 대신증권 상품기획팀장	최성호 신한은행 부동산자산센터 팀장
3월16(목)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106호	배병식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장	김경록 미래에셋은행연구소장	정재호 덕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위 프로그램은 강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주최 한국경제신문

해외서 ‘승승장구’하는 국산 의료기기

고품질로 틈새시장 공략

vatech
바텍

2390
457

LUTRONIC
루트론닉

846
68

i-sens
아이센스

1324
256

*2016년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내세워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바텍, 루트론닉, 아이센스 등은 수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다.

차과 의료기기 기업인 바텍은 지난해 매출 2390억원, 영업이익 45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 영업이익은 11.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매출의 77~78%를 차지하는 해외 매출이 전년보다 15%가량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바텍 관계자는 “영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D 제품이 미국, 유럽 등의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다”며 “중국에서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텍은 지난해 중국 3D 진단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레이저의료기기 업체인 루트론닉은 지난해 전년보다 17.4% 증가한 84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피부과 의료기기 사업을 담당하는 일본, 미국, 중국 법인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는 6개 해외 법인을 두고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혈당 측정기 전문기업 아이센스도 지난해 매출이 1324억67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신규 거래처가 늘면서 북미지역 매출이 30.6%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 매출 호조로 58.6% 성장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이 좋아지고, 의료기기 업체들의 틈새시장 전략이 먹혀들면서 해외 매출이 늘고 있다”며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매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상의료기기 전문기업 디알텍과 자동심장충격기 개발업체 메디아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을 두드린다. 디알텍은 올해를 기점으로 유방용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시작하고, 미국과 독일에 해외 법인을 세울 방침이다. 메디아나는 지난해 한국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의 미국 식품의약품(FDA)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미국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제조업체개발생산(ODM) 계약을 체결했다. **김근희 기자** tkfka7@hankyung.com

복지부, 재생의료 R&D 지원 성과 “루게릭병·크론병 치료제 시판”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첨단 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에 1800여억 원을 투자한 결과 치료제 두 개가 상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재생의료 연구개발 지원 사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재생의료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재생의료 치료제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1856억원이 투입됐다. 1단계 사업 지원 결과 제약사 코아시스템의 루게릭병 완화제 ‘뉴로나타-알’과 안트로젠의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직장과 항문 주변에 피부 염증으로 생긴 구멍) 치료제 ‘큐피스팀’이 국내 허가 받아 시판됐다. 정부로부터 뉴로나타-알은 7억4000만원, 큐피스팀은 7억원을 지원받았다. 루푸스신염 줄기세포 치료제 등 정부의 개발지원을 받은 11개 기술은 국내외 제약사 등에 이전됐다. 기술이전료로 개별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2000억원을 웃돌았다. 뇌졸중 치료제, 난치성 발기부전 치료제 등 대학병원 및 국내 제약사가 수행 중인 임상시험은 14건이었다. **일락근 기자** rklm@hankyung.com

폴루스, 경기 화성에 바이오시밀러 공장 짓는다

바이오 벤처기업 폴루스는 경기 화성시의 장안2 외국인투자지역에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폴루스는 앞서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을 세우기 위해 지난달 경기도 시공사와 4만8000㎡의 사업부지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폴루스는 내년 2월까지 인슐린 및 성장호르몬 등 치료용 의약품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내년 3분기부터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근희 기자** tkfka7@hankyung.com